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장터 & 효도 한마당

지난 10월 5일에 본당의 큰 행사인 친교장터와 효도한마당이 미사 후에 하상관 주차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친교장터는 각 구역단체들과 요한회, 로고스&라파엘 청년회, CYO, CCD, PTO, 성서후원회 및 하랑소리에서 준비한 먹거리와 볼거리들로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천막들 중간에 위치한 무대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소리를 포함한 여러 공연과 장기자랑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주차장 뒤편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문바운스에서 뛰어노는 즐거운 웃음소리로 메워졌습니다.

본당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잔치인 효도 한마당은 75세 이상 어르신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들(17분)에게 장수상이 수여되었고 바오로회 소속 아이들의 꽃 증정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본당의 남녀노소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 날은 맑고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땀을 식혀줄 바람까지 완벽했습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월 5일에는 장터와 효도 한마당에 앞서 추석을 맞아 함께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시작 전 제단 위에 마련된 추석 차례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고국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우리의 뿌리인 한국의 명절과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뜻 깊은 은총의 미사였습니다.

배하정 주임신부님은 “비록 몸은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과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날만큼은 고향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감사하는 마음의 깊은 믿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는 건강한 피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이들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적인 고통과 매일 흉한 물골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고통. 그 병이 옮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외로움, 사람들로 부터 '괴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고 무시와 핍박까지 당하는 정서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이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병에서 낮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아직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치유의 은총을 입으면 그것을 그저 신기한 '기적' 정도로 여길 뿐, 회개를 통한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숙성될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마을로 돌아가는동안 그들은 점점 깨끗하게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자기 삶에 일으키신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이 급격한 변화 대신 느린 변화를 택하신 이유와 의도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뜻을 천천히 곱씹어보고 음미하며 믿음의 참된 맛을 알아가도록 섭리하신 주님의 자상하고 섬세한 배려를 깨닫는 순간, 자연스레 감사와 찬미가 흘러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홉 명의 유다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립니다. 자기들이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으니, 그분께서 자기들이 청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며 서운해 하는 모습,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연히 더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이나 '우연' 같은 건 없음을, 내 삶을 지속시켜주시고 보살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내가 그로 인해, 그가 베풀어준 선의와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고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런 마음으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받은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켰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전적으로 순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깊은 믿음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 굳건한 믿음 덕분에 그는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해져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총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그 은총을 베푸신 분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옵니다.

함승수 세례자요한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묵주기도의 기원과 역사

초대 교회 신자들은 당시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장미와 관을 봉헌하던 관습을 따라, 기도 대신 장미꽃을 하느님께 바치곤 하였습니다. 특히 순교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다고 합니다.

12세기에 이르러 삼종 기도가 널리 보급되면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도 깊어져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송을 50번이나 150번을 하였고, 열번째는 좀더 큰 열매나 구슬을 사용하여 시편의 후렴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모송 10번마다 영광송을 하였는데, 이는 성무 일도 시편을 외을 때마다 하는 영광송을 본뜬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는 묵주 기도란 마리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이때 드디어 초대 교회의 신심과 연결된 장미 꽃다발, 즉 '로사리오'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묵주의 기도는 1830년 이후 세게 각처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시면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은 1830년 파리, 1858년 루르드, 1917년 파티마, 그리고 1981년부터 오늘까지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의기도를 잘 바치도록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예비자 성지순례



9월 28일(일), 예비 신자 20명과 작년에 세례 받으신 교우 분 등 포함한 40여명의 교우들은 메릴랜드 에미츠 버그에 소재한 내쇼날 슈라인 그로토와 씨튼 수녀원에 성지 순례를 다녀 왔습니다.

출발에 앞서 배하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의 성지 순례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강복이 있었습니다. 내쇼날 슈라인 그로토에서 성모님께 기도드리며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은총을 청하고 씨튼 수녀원에서는 성녀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하며 수녀원 투어 및 대성전에서의 미사를 다 함께 바쳤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뜻깊은 시간을 나누며 신앙안에서 한층 가까워지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당에 도착하니 기다리고 계셨던 배다니엘 신부님께서 일일이 순례 일행을 따듯이 맞이해 주시며 오늘 있었던 성지 순례를 통하여 더욱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하시며 마침 강복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로고스 & 라파엘 청년회 피클볼



로고스와 라파엘 청년들의 두 단체는 화합을 위해 매주 진행하고 있는 친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토요일(10/4) 특전미사를 함께 봉헌한 후 하상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피클볼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하정 신부님께서도 들려 주시어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기 좋으시라며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 단체의 임원진들은 당일 낮에 장터 준비를 돕느라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으나 아직 청년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카르멜 침묵피정



워싱턴 재속 맨발 가르멜회는 10월 3일부터 2박 3일동안 버지니아 Holy Cross Abbey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침묵피정을 가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의 고요속에서 묵상기도와 성무일도를 함께 드리고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며 재속 가르멜 회원의 정체성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재속회원들이 세상속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은총을 전달하는 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신비를 묵상하며 복음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기도과 인내로써 숙성되어 말씀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연피정은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르멜 영성에 관심 있으신 분은 박숙자 골롬바 (804-740-34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와 라파엘 사과 농장 체험



로고스와 라파엘 청년들이 이다니엘 부제님과 함께 10월 11일 토요일 Markham에 위치한 사과농장에 사과를 따는 체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침일찍 성당에 모인 청년들은 부제님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농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드넓고 푸르른 농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과를 따고 맛보며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청년들은 함께 해주신 부제님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지속되는 청년활동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벤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SPC_LOGOS
로고스 인스타그램



@SPC_RAPHAEL
라파엘 인스타그램

1. 2차 헌금 안내

- 다음 주일 (10월 19일)에는 World Mission (전교 주일)을 위한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연중 28주간 모임 안내

- 10월 12일 (일)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복사단 회합 (오전 11시 30분)
 베드로회 바베큐 (오후 1시)
 10시 성가대 친교 모임 (오후 12시)
 안나회, 하상회 성지 순례 사전 모임 (10시 미사후)

3. 연중 29주간 모임 안내

- 10월 13일(월) : 안나회, 하상회성지순례 (오전 9시)
- 10월 18일(토) : 5K 걷기/달리기 (오전 7시)
 CLC 서약식 (오후 1시)
- 10월 19일(일) : 꾸리아 월례회의 (오전 11시 40분)
 결혼희년미사 (오후 2시 30분)
 주일학교 학부모 회의 (오후 3시)

4. 청년 성서 모임 모집

- 청년성서모임에서 가을학기에 함께 성서말씀을 공부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 관심있으신 분들은 10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승진 아녜스 703-470-2171
 신청서 링크: <http://bit.ly/4msHOfP>



5. 안나회, 하상회 성지 순례 안내

- 안나회, 하상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성지 순례를 가십니다. 몇 년만의 성지 순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성지 순례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세요.
- 일시: 10월 13일(월) 오전 9시 -저녁 5시
 신청하신 분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장소 : Emmitsburg, MD
 오후 1시에 내셔널 그루토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6. 안나회, 하상회 성지 순례 사전 모임

-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10시 미사후 하상관 105호에서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푸르실로 주관 하상 까리따스 후원을 위한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18일 (토) 아침 7시-오전 10시
- 장소 : Burke Lake Park(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10시 미사전후 로비, 친교실
- 참가비 : 1인: \$20, 2인: \$30
 한가족 (3인): \$40 (아침식사제공)
- 문의 : 박기정 라파엘 간사 703-862-0039



8. CLC 서약식 안내

- 첫 서약자와 유기 서약자를 위한 서약식이 있습니다.
- 일시 : 10월 18일 (토) 오후 1시
- 주례 신부님: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9. 결혼 희년 미사 안내 (Mass for Marriage Jubilarians)

- 결혼 50주년 (1975년), 25주년 (2000년)이 되신 교우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 집전으로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10월 19일 (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 우리 성당에서는 결혼 50주년 맞는 3부부, 결혼 25주년 맞는 2부부가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속에 미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세요.

10.주일학교 학부모 회의

- 일시 : 10월 19일 (일) 오후 3시-4시
- 장소 : 친교실 B-1,2
-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 방향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CCD와 CYO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박예인 헬레나 703-755-5005

11. 로고스 청년 모임

- 일시 : 주일 저녁 5시 미사후 친교실
- 대상 : 만 18세 이상 미혼의 신자
- 문의 : @spc-logos, 최지윤 요안나 프란체스카, 703-209-9913
- 본당의 한국어권 청년들로 구성되어 주일 오후 5시 청년 미사를 중심으로 회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친목과 신앙적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 영화 상영 안내

- 일시 : 10월 26일 (일) 오전 11시 40분-오후 1시 40분
- 제목 : 두 교황 (The two Popes)

13. 학생 견진성사 미사 안내

- 일시 : 10월 28일 (화) 저녁 6시 30분
- 교구장이신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의 집전으로 견진 성사 미사가 있습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학생 견진 미사에 주일학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이 참석하시어 견진 받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견진 성사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4.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일시 : 10월 31일 (금) 저녁 7시 30분
11월 1일 (토)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 “모든 성인의 날”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 모두 3대의 미사가 봉헌되오니 본인에게 맞는 시간에 오시어 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15. 묘지 합동 위령 미사와 묘지 축복식

- 일시 : 11월 8일 (토) 오전 10시 (신묘지 축복식)
오전 11시 (위령 미사)
11시 미사후 (구묘지 축복식)
- 위령 미사 장소 : 페어팩스 메모리얼, 왼쪽 신묘지
- 우리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위령 미사 봉헌하실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16.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당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나보세요.
- 본당 주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례 미사 때는 평화의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미사에서 평화 예식 (주님의 기도를 바친후 사제가 평화를 비는 기도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주신 선물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 14.27)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 따라서 미사에 참례한 이들이 서로 축원하는 평화 예식은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로마 교회 미사전례지침에 따르면 평화 예식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거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장례미사때 평화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현대에는 오히려 이시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0월 5일 (연중 제 27주일)

봉헌금	-----	\$8,388.00
교무금	-----	\$6,990.00
교무금 (신용카드)	-----	\$4,240.00
감사 헌금	-----	\$900.00
2차 헌금	-----	\$2,709.00
온라인 봉헌	-----	\$3,805.00
합계	-----	\$27,032.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0월 17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0월 19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강론
2. 가톨릭 뉴스
3. 김현우 신부님 본당 특강 2부: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10/12 이번주	페어팩스 2구역-1반
10/19 다음주	페어팩스 2구역-2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